

설명절 가정예배안

1.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

목 도 다같이 목도하시면서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찬 419장	다 같 이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 후렴 |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자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 도	가 족 중
-----	-------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와 설날을 주셔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50:1, 로마서12:1	인 도 자
------	-----------------------------	-------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설 교 복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인 도 자
찬 송 찬 569장	다 같 이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 양의 문이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축복과 다짐	가족과 함께
--------	-------	--------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권면하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주기도문	다 같 이
------	-------	-------

2. 설교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구원의 시작, 신앙의 시작, 예배입니다. 삶의 시작도 예배, 복의 시작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 시작입니다. 왜 예배로 시작해야 할까요?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배하는 집안에 이런 약속, 복을 담았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밤낮 귀를 기울 것이다. 전염병을 막아줄 것이다. 병든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며,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눈이 항상 이곳에, 내 마음이 항상 이 예배하는 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높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과 약속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과 일어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죠.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 심판받는 겁니다. 용서받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왜 내 삶은 당당하지 못하고 늘 쫓기듯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구질구질하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가? 혹시 그런 삶이라면 예배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해 봅시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재물, 내 삶,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드릴 때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 삶이 별레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이 녹슬고,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용서받은 기쁨 속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존귀하게 되고 싶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식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을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여기면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병충해를 막아주고, 삶의 전염병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상이 병들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그리고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십니다. 주어진 한해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을 소심하게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전부를 다시 드릴 때 더 신령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다 받습니다. 한해 복된 예배자 되는 가정과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뜻 깊은 설명절 되세요!
도원교회